

순천, 여름철 박람회장 등 식품 안전관리 '총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식음료안전센터 운영 내달 사회복지급식센터 신설...장애인·노인 지원

순천시가 여름철을 대비해 박람회장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맛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관광지와 숙박업소 주변, 주요 상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4월 박람회 개최 이후부터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총 41명을 위촉, 점검

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정원박람회장 내 식음료안전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상주하며 박람회장 식음료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배달음식점, 무인 식품판매시설, PC방 등에 대한 식품안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학원가 무허가 식품판매 점검과 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 경찰 합동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함께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업소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시 대규모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집단 급식소와 관련 업체의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규모 어린이집 등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설, 장애인과 노인



시는 오는 7월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설, 장애인과 노인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할 계획

이다. 더불어 8월까지 시민이 자주 구입해 섭취하는 카페 얼음, 빙수, 콩국 등을 집중 수거해 검사하고 10월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기섭 순천시 식품위생과장은 "기온이 1℃ 오르면 식중독 발생 비율이 47%로 오른다는 전문기관의 보고가 있다. 6-9월은 식중독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간이므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관계자 및 일반 가정에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정기기자

“해산물 85℃ 이상 가열 섭취 조리도구는 끓는 물에 소독”
장성군, 비브리오패방 당부

장성군이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 또는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된다. 상처에 바닷물이 닿아도 걸릴 수 있어 피서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한 사람은 구토, 설사, 복통 등을 겪다 차츰 악화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결핍 환자는 위험할 수 있다.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 괴사 등 패혈증 쇼크 증상을 유발하며 패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50%로 매우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먼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패류는 5℃ 이하 저온 보관, 85℃ 이상 가열 섭취하고, 손질 시 흐르는 수도물로 씻는다. 사용하고 난 조리도구는 끓는 물에 소독해 보관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읍면 보건지소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전달했다”며 “마을 방송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가르친다.

장성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오는 7월3일부터 8월25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브리오패혈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장성군 보건소(061-390-7170)로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장성=김문태기자



6월 싱그럽게 영그는 광양 '초록매실' 계절

8년 연속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

광양의 6월은 탐스럽게 영글어 가는 싱그러움 초록 매실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은 따뜻한 별과 백운산 맑은 공기, 풍부한 섬진강 수량 등 매실 재배 조건을 두루 갖춘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다.

광양매실은 지역특산물 부분에서 8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될 만큼 소비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매화가 피는 봄이면 앳따뉘 물려들었던 상춘객들이 광양매화마을을 있고 있는 동안도 매실 농가는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푸른 보약을 가꾼다.

매실은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을 활기차게 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다.

특히 갈증 처방으로 동의보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매실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 필수 아이템이다.

조조가 삼복더위에 군사를 이끌고 행군하던 중 “산을 넘으면 매실나무 숲이 있다”며 갈증을 잊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생각만으로도 갈증을 해소하는 효능을 발휘한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광양은 매실을 활용한 농축액, 장아찌, 된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광양 매실을 활용한 광양매화향, 매실쿠키, 매실아이스크림, 매실쌀강정 등 광양에서만 맛 볼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정규영 관광과장은 “가장 먼저 봄의 전령인 매화를 꽃 피운 광양의 6월은 초록 매실을 수확하는 결실의 시간”이라며 “풍부한 햇살과 맑은 바람이 키운 광양매실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 명품 매실로 만든 광양매화향, 매실쿠키, 매실쌀강정, 각종 가공식품 등은 광양을 찾는 여행자가 반드시 맛보고 챙겨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양홍렬기자

LG화학, 여수 바다에 탄소 흡수 해초 심는다

‘블루 카본’ 잘피 서식지
2026년까지 복원
10ha까지 규모 확대
탄소 5천t 흡수 효과

LG화학이 여수 바다에 탄소를 흡수하는 해초 서식지를 복원한다.

LG화학은 12일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사업장이 있는 여수 앞바다에 잘피 군락지를 조성하고, 축구장 14개 크기인 10ha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잘피는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는 해초류로 해양생물의 보금자리이자 바닷속 탄소흡수원인 ‘블루 카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대 김장군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퇴적층을 포함해 잘피 군락지 1ha 당 최대 500t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 10ha규모 잘피 서식지는 잘피가 숨겨진 퇴적층을 포함해 자동차 2천800대가 매년 배출하는 양의 탄소(5천t)를 흡수할 수 있다.

잘피 서식지는 산림보다 흡수량이 30배 이상 많아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꼽은 3대 블루 카본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연안의 잘피 군락지는 지구 온난화와 해양쓰레기



LG화학이 여수 바다에 탄소를 흡수하는 잘피 군락지를 2026년까지 조성한다. 사진은 여수 앞바다에 복원된 LG화학의 잘피 서식지 예상 모습. **〈LG화학 제공〉**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복원과 생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잘피 서식지가 복원되면 탄소 흡수의 예도 인근 생물 개체 수는 25배, 종류는 15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질이 개선돼 생태계가 회복되는 만큼 인근 어촌과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다.

복원 사업에는 LG화학의 주도로 총 6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LG화학은 4년 14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전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팜스 카본이 담당하고, 여수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맡으며 한국

수산자원공단이 잘피 서식지를 복원, 생태환경 조사·잘피 군락지의 효과 분석 등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잘피 서식지 복원에서 더 나아가 민간 기업 주도로 생태 연구가 지나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여수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교육사업을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블루 카본 알리기 사업을 위해 메타버스 개발과 관리를 맡을 계획이다.

세계 해양의 날인 지난 8일에는 제페토에서 메타버스 바다숲인 'BLUE FOREST'도 공개했다. BLUE FOREST은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잘피 심기, 바다식목일 봉사활동 등 가상의 바다숲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자기만의 바다 숲을 만들고 다양한 미션과 게임을 경험하며 탄소 감축 효과와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역사회의 상생뿐 아니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며 “글로벌 과학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탈탄소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지속가능 리더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곡성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60억 확보

월경·고치·운교마을...내년·2027년 노후주택 정비 등 추진

곡성군은 “최근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 대상지 3개소 모두 선정돼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

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노후된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

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삼기면 월경마을, 죽곡면 고치마을, 겸면 운교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해당 마을들은 지난 3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남도 현장 컨설팅·농식품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3개 마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택·담장, 마을안길 등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

링, 마을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 관계자는 “이번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기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고 깨끗한 마을로 바뀔 모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상훈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대상 마을을 지속 발굴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호산기자**

장흥 모령마을, 道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마을 벽화·돌담·흙벽·우물 등 가치 인정 받아

장흥군 안양면 모령마을이 '2023년도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을 말한다. 친환경 인증 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 면적 비율 30% 이상으로 생태 환경이 잘 보

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이 지정된다.

현재 장흥군은 관산읍 송촌·옥촌마을, 안양면 신촌·하송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안양면 모령마을(사)는 유기농 184ha, 무농약 4ha 등 총 2



24ha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태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마을회관 앞 벽화와 마을 돌담 및 흙벽 그리고

우물 등의 생태환경 가치를 인정 받았다.

군은 향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발 및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농업 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기농업 위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군민 소득 향상과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죽순과 함께 자라는 수국 즐겨요”

구례, 수국 5종 3천100여송이 '섬진강 대숲 길' 정자 옆 식재

구례군은 12일 “구례읍 원방리에 위치한 '섬진강 대숲 길' 정자 옆에 수국 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지난 2020년 수해로 대나무가 고사한 자리에 수국 5종 3천100여송이를 식재했으며, 수국 단지는 기존에 조성된 대나무 숲길과 어울려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 대숲 길에 새롭게 조성된 수국단지의 꽃향기와 함께 구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국은 낙엽성 관목으로 다양한 색채를 가진 싱그러움 여름꽃이며 꽃의 색은 토양의 산성도(pH)에 따라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띤다. 개화 시기는 6-7월이며, 1-1.5m까지 성장한다. **／구례=임종길기자**

